

/ 장애인 최초 7대륙 최고봉 완등 김흥빈 대장 인터뷰 /

# “이젠 히말라야 14좌 완등 도전 국민들에 새 희망 심어 주겠다”

새해 벽두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4,897m) 등정으로 양손이 없는 장애인으로서 사상 최초로 7대륙 최고봉 완등의 쾌거를 이뤄낸 김흥빈(46·에코로바 홍보이사) 대장은 “앞으로 5년 이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가운데 아직 오르지 못한 10개 봉우리를 모두 올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대장은 올 봄 시즌 안나푸르나(8,091m), 다울라기리(8,167m), 여름 시즌엔 K2(8,611m)에 연속 도전할 계획이다. 김 대장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가셔브롬II와 시사람마 남벽, 에베레스트, 마칼루 등 8,000m급 4개 봉 정상을 밟았다.

-마침내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올랐다.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무슨 거대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산을 좋아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등반이어서 시작한 것이다. 비록 남들보다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1997년 유럽 엘브루즈 등정 준비 과정에서 치면 폭 12년이 걸렸다.

획보다 늦어졌다.

-유령, 미주 산악인들과 함께 빈슨 매시프를 올랐다.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미주나 유럽에는 3,000~4,000m급 고산이 많아 그들은 자연스럽게 고산에 적응하고 들어온다. 따라서 체력적으로는 유리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다소 떨어진다. 생각이 들었다. 다만 안전을 중시하는 점은 배울 부분이다.



지난 3일 남극대륙 최고봉 빈슨 매시프(4,897m) 정상에 오른 김흥빈 대장.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애 다시 산으로 가게 됐다. 가족들의 반대도 심했었는데.

▲산에 대한 원망은 없었다. 산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스스로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면 누가 도와주겠나. 이상하게도 산에만 가면 힘이 생기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아마도 산이 나를 끌어당겼나 보다.

-손가락이 없는 것이 등반에는 치명적 아닌가.

▲다리 힘을 많이 길러 양발로만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시내버스를 타고 앉지 않거나 뒷받침고다니기 연습도 했다. 크랩폰 착용 때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걸음도 일상에 서 이에 생활화했다.

-8,000m급 14좌 완등까지 모두 이룬다면 그 이후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나눔캠프를 운영해보고 싶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일과 재주가 있다. 이를 심분발하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다.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 오히려 편안해진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채우려는 노력이 뒤따르는 법이다.

/남극·정후식기자 who@

##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흘째

### 여수산단 물류 차질

여수와 광양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사들의 운반비 인하에 반발해 사흘째 운송을 거부함에 따라 장기적인 물류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여수산단과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여수와 광양의 화물연대 조합원 170여명은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운송사의 운반비 인하에 반발해 사흘째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내 일부 사업장에서는 적잖은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운반비 인하폭을 둘러싼 운송사와 화물연대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배차 거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여수운송협의회는 지난해 합의한 유가연동제에 따라 올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을 지난해 6월의 유가로 책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측은 기준 시점을 지난해 12월로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좁혀질 가능성이 좁아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또 최근 경기침체와 수송물량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운송비 인하 요인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물류 차질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운송협의회는 12일 오전 8시까지 현안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에게 통보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총경급 3명 내사설

### 광주지검 '오락실 뇌물' 수사 확대...휴업 속출

최근 '사행성 오락실 역대 뇌물' 사건의 수사가 경찰 고위간부 등 '윗선'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자 광주지검 사행성 오락실 업무들이 앞다투어 문을 닫는 등 바빠진다고 있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9일 오락실 뇌물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의 근무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자 지역내 사행성 오락실의 자진 휴업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경찰 사이에선 총경급 인사 3명에 대한 내사설까지 나돌면서 이번 사건의 불명이 서부경찰은 물론, 광산경찰과 광주지방경찰청 등 광주 전역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서구 삼부지구 등 서부경찰 관할은 물론, 광산구내 동구, 북구 등에서 음성적으로 영업중인 사행성 오락실도 대부분 문을 걸어잠그는 등 잔뜩 움크린 모습이다.

현재 광주지역의 불법 사행성 오락실 수는 대략 350곳(경찰 추정). 이 가운데 상당수 오락실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의 한 건물 3층에 사행성 오락실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 중이던 업주 A씨는 지난 9일 가게 문을 닫았다.

또 서구 치평동의 한 사행성 오락실도 자진 휴업에 들어가는 등 상당수 업주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분위기다. 또 일부 오락실 업주의 경우 이번 뇌물 사건이 터지자마자 타 지역에서 업소를 차릴 곳을 모색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행성 오락실 업주 A씨는 “수사가 확대되자 상당수 업주들이 일단 영업을 접고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일찌감치 타 지역에서 영업을 차린 업주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이종형기자 choice@

## 지하철 선로 추락 광주 50대 女 중상

11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지하철 화정역 승강장에서 김모(여·59)씨가 소타역 방면으로 가던 '1042'(기관사 정모차·27) 열차가 치어 머리를 다쳤다.

사고장소는 화정역 승강장 총 길이

120m 중 80m 지점(소타역 방면)이 당시 열차는 20km/h로 승강장에 진입한 뒤 정차하던 중이었다.

김씨는 열차가 멈추려던 순간 길이 2m, 높이 1.5m의 지하철 안전펜스 사이(안전펜스 간격 2.1m)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살 시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량량형

무료신문 무더기 가져가면 절도죄?

## 성다발

○광주의 한 병원 앞 광산에서 무료신문을 무더기로 가져간 40대 남성이 배포업자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8·광주시 동구 산수동)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J내과병원 앞 길 가판대에 비치된 송모(36)씨의 S생활정보지 24부 등 총 59부의 무료신문을 가져간 혐의.

○경찰조사에서 송씨는 “지난해 여름에도 정씨가 무료신문을 수 십여 부나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며 “자꾸 이런 일이 생겨 신문을 배포한 뒤, 숨어서 지켜보던 중 (정씨를) 붙잡게 됐다”며 처벌을 요구.

○경찰은 “무료신문이라도 무더기로 가져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폐지를 팔아 이득을 챙기려는 행위는 절도죄로 입건이 가능하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Oxon Korea)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districts like Daegu, Busan, and Gwangju.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 real estate agent and a list of properties with prices and features.

Advertisement for Science Communicator training course. It details the course objectives, target audience,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enter, GJIS WIST.